

한국 교회가 한 때는 사도신경을 사용하지 않는 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 이유는 사도신경이야말로 가장 정확하게 성경의 교리와 구원의 진리를 함축하고 있다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며, 또 참 진리를 따르지 않는 교회나 신자는 사도신경을 감히 고백할 수 없어서 그것을 기피하는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도신경의 유래와 그 내용을 살펴 본다면 그러한 사례는 너무 지나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보면 그것이 성경적 모양새로 쓰여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복음적 신앙고백이 결핍되어 있고, 또 그 내용들이 의미하는 배경을 살펴볼 때 여러 가지 심각한 요소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특별히 오늘날 로마 카톨릭을 통하여 기독교 안에 종교 혼합주의가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과연, 로마 카톨릭 배경의 사도신경을 계속 예배시에 고백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놓고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특별히 앞으로 영어권에서 자라는 2세, 3세대, 후세의 신앙을 염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사도신경의 역사적 배경

많은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사도들이 전해준 신앙고백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제목이 “**사도신경**”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것도 아니요, 사도들이 전해준 것도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의 형태는 A.D.650년경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아주 초보적인 신앙 고백 형태였다. 예를 들면, 세례식 때에 간단히 “예수는 주님이시다(Jesus is Lord)” 또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Jesus is the Son of God)”를 고백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세기 중반부터 **카톨릭 신학의 발전**(the evolution of the mature theology of Catholicism)과 함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추가로 삽입되기 시작하였다(Early Christian Creeds, by J.N.D. Kelly, p.6). **대영백과사전**(Britannica Encyclopedia)에도 보면 사도신경은 2세기경 **옛 로마의 상징**(Old Roman Symbol)이라고 기술하고 있다(15th Ed. Vol.5, p.244). 그리고 본격적으로 내용물들이 첨가되기 시작한 것이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한 이후부터이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의 발전은 로마 카톨릭의 배경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로마 카톨릭이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고성소에 내리시어(He descended into hell)**”는 A.D.390년경 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거룩하고 공변된 교회(The Holy Catholic Church)**”와 “**모든 성인의 통공(The Communion of Saints)**” 은 A.D.650년경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즉, 3세기 이후 카톨릭 교세가 확장되고 본격화 되면서 점차 여러 가지 문구가 추가로 삽입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이 6세기 이후부

터 전해져 온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현재 개신교가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로마 카톨릭 배경과 그들의 교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

사도신경과 로마 카톨릭의 교리

기독교의 신앙고백은 자신이 믿고 있는 성경적 **구원의 진리**를 간단 명료하게 밝히고 확신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의 구원교리는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 있으며 확신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의 공의회에서 결정한 내용들만 몇가지 살펴보자도 그들의 교리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로마 카톨릭 배경의 사도신경(Apostles' Creed)은 그러한 교리에 바탕을 두고있다.

▶ **교황 피우스 10세** — 로마 교황을 자신의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소속된 자가 아니다(**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부인**).

▶ **교황 피우스 10세** — 교황에게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신앙과 도덕의 문제를 규정함에 있어 그는 절대 무오(Infallible)하다. . .교황의 절대 무오성에 대한 교리는 바티칸 공의회, 성 교회에 의해 정의되었으므로, 감히 교황의 절대무오성을 부인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이단이다(**교황이 하나님 위치에**).

▶ **트렌트 공의회, 1546** —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성인들이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며 이 신앙고백을 반대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이다(**죽은 성인 숭배 이유**).

▶ **트렌트 공의회, sees. XIV, can. Vi** — 고해성사가 신의 명령에 의해 제정되었음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것이 구원에 필수요소임을 부인하는 자, 혹은 카톨릭 교회의 대동으로부터 준수되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준수 되고 있는 관행, 즉 오로지 사제에게만 죄를 은밀히 고백해야 한다는 관행이 그리스도의 규정과 명령에 이질적인 것이라고 반박하며, 그 관행이 인간의 발명품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이다(**고해성사로 신부에게서 죄사함 받음이 구원의 필수요소?**).

▶ **트렌트 공의회, sess.vi** — 은혜를 덧입고 영생을 얻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들은 의인의 여러 선행과 금식, 자선, 고행 등이다(**행위구원 강조**).

▶ **트렌트 공의회, ss. vi** — 만일 구원받는 믿음은 그리스도 때문에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것뿐이라고 하거나, 그 확신에 의해서만 우리가 구원 받는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이다(**오직 믿음과 은혜의 구원을 부인**).

▶ **교황 바오로 2세, Dec. 1984** —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죄 용서 받는 것이 아니므로 자주 신부들에게 죄를 고백해야 한다(**사도신경에 성경적 구원의 핵심 내용이 없는 이유**).

사도신경의 내용 분석

사도신경

(한국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내용)

전능하신 천부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신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고성소(저승)에 내리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 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신을 믿으며, 거룩하고 공변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사함과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히 삶을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한국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내용)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Apostles' Creed

(개신교 영어권에서 사용 중인 내용 — 천주교와 같음)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Ghos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itteth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Ghos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동정녀 마리아

이사야 7:14(Asv, kjv)에 보면 메시아 탄생에 대하여, “보라 한 처녀(a virgin)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고 예언하였다. 여기서 “한 처녀”는 일반적인 처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영원한 처녀로 만들고 그녀를 신성시 하기 위하여 그녀에게 “동정녀(The Virgin)”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마리아를 동정녀라고 부르는 것은 그녀가 영원한 처녀로서 남자와 성 관계를 한번도 가진 적이 없으며, 예수 외에는 출산한 경험이 전혀 없다는 의미에서 사용하는 천주교(로마 카톨릭) 용어이다. 그리고 마리아를 하나님과 같은 신분으로 격상시켜서 “천상모후(=하늘황후: The Queen of Heaven)”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리아의 신분을 알리는 로마 카톨릭의 공식 명칭이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의도적으로 마리아를 구세주 위치에 올려 놓으려고 한다. 예를 든다면, 창세기 3:15에서 하나님은 뱀에게 저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여자의 후손(seed)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his)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여 장차 나타날 여인의 후손이 남성으로 되어 있는데, 로마 카톨릭의 교황 레오 13세가 출간한 라틴어 성경에는 “여자의 후손, 그녀가 네 머리를 부숩버릴 것이요, 너는 그녀의 발꿈치를 부수기 위해 숨어 기다릴 것이라 (her seed: she shall crush thy head and thou shall lie in wait for her heel)”로 되어 있다(The Holy Bible, by Pope Leo XIII, The Douay Bible House, 1941 from the Latin Vulgate). 여기서 “그녀”는 “동정녀”(The Virgin)마리아를 의미한다. 성경을 왜곡한 것이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부를 때 “공동 구속주(Co-Redeemtrix)” 또는 “공동 중보자(Co-Mediatrix)” 라고 한다. 그녀는 보통 처녀가 아니고 영원한 처녀이고 하늘 황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정녀이며, a virgin이 아니고 The Virgin이다.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이 물려준 성경에는 마태복음 1:25에서 “말아들(her first born)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라고 함으로서 예수님의 친동생이 있음을 분명하게 암시하고 있다(Ref. TYNDALE'S NEW TESTAMENT, Yale University Press, 1534). “말 아들”이란 표현은 그의 친동생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바티칸 사본에 의하여 번역된 성경에는 “말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아들”이라고만 번역되어 있으며, 카톨릭에서는 이를 근거하여 주장하기를 예수님의 친동생은 없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형제는 이중 사촌이나 친척이었다고 주장한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마리아는 동정녀가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일반적인 “한 처녀”였고 자녀들을 낳았다. “동정녀”라는 용어는 이방 종교에서도 여인을 신격화 할 때 자주 쓰는 용어이다. 힌두교의 <베단타 경전(Hindu Vedanta Scriptures)>에는 “칼리 유가(Kali-Yuga)의 초기에 동정녀(the Virgin)의 아들이 태어나리라”는 구절이 있다.

사도신경

(한국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내용)

전능하신 천부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신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고성소(저승)에 내리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 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 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신을 믿으며, 거룩하고 공변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사함과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히 삶을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한국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내용)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Apostles' Creed

(기독교 영어권에서 사용 — 천주교와 같음)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Ghos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itteth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Ghos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본시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공생애(Official Life)를 통하여 계속 유대인들에게 비난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고통을 당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임 당하실 때에도,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는 말씀으로 확인 된다(마27:1).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렇게 결정하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고소하였다(눅23:10). 그 전에는 빌라도가 예수를 관여하지 않았다.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를 인수 받은 빌라도는 당황하였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석방하려고 애를 썼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부터 19장 38절까지 보면, 빌라도의 이름이 22회 나오고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선동과 협박에 말려들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진 빌라도는 혹시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자백이라도 받을까 하여 그를 잠시 채찍질하였지만, 그가 결백함을 아는 빌라도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였다.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요19:4). 그러나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을 본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하고 그의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하면서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유대인들이 질 것을 선언하였다. 그 때 유대인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하였다(마27:24-25).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의 모든 책임이 유대인들 스스로에게 있다고 자인한 것이다.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시종 일관 유대인들에게 고난 당하시다가 유대인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는 민란을 일으키려는 유대인들을 가라앉히려고 그들의 요구대로 허용한 것 뿐이다. 그러므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문구는 빌라도와 관계된 법적 문구일 뿐이며, 신앙고백에 들어가야 할 문구가 아니다. 참 신앙고백이 되려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란 말을 빼고, “나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적절하다.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받은 구원을 언급하지 않는다. 그것은 로마 카톨릭의 구원교리가 행위 구원 이기 때문이다(트렌트 공의회 참조).

▶ 트렌트 공의회, sess. vi — 만일 구원받는 믿음은 그리스도 때문에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것뿐이라고 하거나, 그 확신에 의해서만 우리가 구원 받는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신경

(한국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내용)

전능하신 천부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신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고성소(저승)에 내리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 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 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신을 믿으며, 거룩하고 공변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사함과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히 삶을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한국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내용)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Apostles' Creed

(기독교 영어권에서 사용 — 천주교와 같음)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Ghos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itteth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Ghos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고성소에 내리시어

“고성소(Limbo)”라는 말은 지옥과 천당의 중간 장소를 말하는 로마 카톨릭의 용어이며, 기독교(로마 카톨릭교회)에 접촉할 기회가 없이 죽은 자 또는 성세(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어린이들이나 이교도들의 영혼들이 있는 곳을 말한다. “고성소에 내리시어”라는 말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곳에 가셨다는 뜻이다.

고성소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아버지 고성소(limus patrum; the father's limbo)”이다. 이곳은 구약의 성도들이 간혀있던 곳인데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을 때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다”고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한다. 다른 하나는 “어린이 고성소(limus infantum; the children's limbo)”인데 이곳은 자범죄(자기 스스로 짓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았지만 성세(유아세례)로 원죄를 씻지 못하고 죽은 어린이들이 있는 곳이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곳에 가서 그 어린이들을 구원하셨다고 로마 카톨릭은 주장한다.

개신교가 사도신경을 사용하려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을 바꾸어서 “장사한바 되사”, 또는 “장사한지”로 간략하게 변경한 후 그것을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다. 로마 카톨릭 배경에서 만들어진 이러한 사도신경을 개신교에서 신앙고백으로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그들의 연옥교리나 고성소 교리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예수님의 중보사역의 특성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밝히지 않고, 죄사함의 본질인 인간의 죄성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에 관한 언급이 없는 로마 카톨릭의 신앙고백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 받아 천국(영생)에 이르게 되는가에 대한 복음의 핵심요소가 빠져있다. 그것은 로마 카톨릭이 마리아를 중보자로 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없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신교가 그러한 신앙고백에 아직 매달려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도 슬픈 현상이다.

지금은 배도의 때(살후2:3)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WCC와 보조를 맞추면서 종교화합과 종교혼합주의로 가고 있는 실정이며 로마 카톨릭과 함께 “교회일치”를 주장하고 있다. 때가 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기독교와 로마 카톨릭이 통합하여 “교회일치”를 이룰 것이라고 본다. 결국 세계 단일종교로 향한다는 징조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흐름을 간파하고 있는 개신교 목회자나 교회는 지금 로마 카톨릭과 차별화 하기 위해서 예배시에 사도신경을 사용하지 않는 추세이다.

“...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18:4)

사도신경

(한국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내용)

전능하신 천부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신으로 동정녀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고성소(저승)에 내리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 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 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신을 믿으며, 거룩하고 공변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사함과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히 삶을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한국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내용)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Apostles' Creed

(기독교 영어권에서 사용 — 천주교와 같음)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Ghos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itteth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Ghos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거룩하고 공변된 교회

개신교에서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거룩한 공회... 믿사옵나이다”라고 말할 때 그 “거룩한 공회”는 “거룩한 로마 카톨릭 교회(The Holy Catholic Church)”라는 뜻이다. 또 그 “거룩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모이는 것을 “공의회” 또는 “공회”라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거룩한 교회임을 믿는다는 뜻이고 또 그들의 공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동의하며 믿는다는 의미까지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추호도 가지지 않고 고백하지만, 사도신경의 유래와 신앙적 배경을 놓고 제 삼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옛 말에 “참외밭 옆을 지나면서 신발 끈을 매지 말라”는 말이 있다. 왜냐하면, 참외밭 옆으로 지나면서 길을 멈추고 허리를 굽혀서 땅 쪽에 손을 향하고 있으면 멀리서 볼 때 참외 도둑놈으로 오해 받기 때문이다.

현재 기독교가 용납할 수 없는 로마 카톨릭의 수많은 잘못된 교리가 모두 그들의 “거룩한 공회”에서 논의되고 결정지어진 것들이다.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음모와 결정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루어진 이래로 기독교 역사 전반에 걸쳐서 “거룩한 공회” 또는 “성회”라고 불리어지는 모임에서 온갖 오류가 만들어지고 결정되어 왔으며,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중세기에도 “거룩한 공회”에서 참신자들을 이단자로 결정하고 수 많은 생명들을 무참히 살해하여 순교자의 피로 땅을 적시는 일들이 자행되었다. 로마 카톨릭의 역사를 통하여 소위 “거룩한 공회”에서 제정된 모든 교리들, 참 성도를 이단자로 정죄한 조항들이 지금도 변함 없이 그대로 건재하고 있음을 한국 교계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바티칸은 하나의 국가이며 로마 카톨릭의 교리는 곧 한 국가의 법이다. 그 법들은 언제라도 다른 형태로 시행될 수 있음을 개신교 신자들은 알아야 한다.

한국 교회가 영어권 자녀들을 위하여 영문판 사도신경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I believe. . . The Holy Catholic Church”(내가 거룩한 카톨릭 교회를 믿습니다)를 암송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도신경

(한국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내용)

전능하신 천부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신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고성소(저승)에 내리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 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 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신을 믿으며, 거룩하고 공변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사함과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히 삶을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한국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내용)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Apostles' Creed

(기독교 영어권에서 사용 — 천주교와 같음)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Ghos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itteth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Ghos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모든 성인의 통공

성경이 증거하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고(히10:10),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벧전 1:22), 진리의 말씀으로 기록해진 자들(요17:17,19)을 의미한다.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복음은 진리의 말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엡1:13).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는 곳에는 구원의 복음이 가려져있고, 거기에는 진정한 “성도”가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이 개신교가 알고 있는 “성도”의 의미이다. 그러면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인(the saint)”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인가?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인(the saint)”은 성경에서 언급하는 “성도”가 아닌 것을 먼저 이해해야 로마 카톨릭 배경의 사도신경을 개신교가 받아들일 수 없음을 알게 된다.

개신교 신자들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 한다고 하니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나 사도신경에서 “모든 성인의 통공(the Communion of Saints)”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이다.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인(the saint)”은 “지상에 있는 신실한 자들(the faithful on earth)”과 “연옥에 있는 영혼들(the souls in purgatory)”과 “하늘에 있는 성도들(the saints in heaven)”을 다 포함하는데 그들이 하늘과 땅과 연옥에서 영적으로 결속(the spiritual solidarity)되어 서로 교통한다는 것이다 (CATHOLIC ENCYCLOPEDIA, <http://www.newadvent.org/athen/04171a.htm>). 서로 기도하고 도와주는데 죽어서 하늘에 있는 성도가 지상에 있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지상에 있는 자는 연옥에 있는 자를 위해 기도하며, 죽은 성인에게 기도하고, 죽은 성인을 숭배한다 (suffrages, invocation, intercession, veneration, etc.). 그것이 사도신경이 말하는 통공(inter-relations)이다.

성경은 죽은자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사8:19).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영혼을 불러내어 죽은 자와 교통하는 초혼자를 가증히 여기신다고 하였다(신18:11-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은 죽은 영혼들과 통공(inter-relations)한다고 고백하고 있다. 개신교 신자들은 그러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신앙고백을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왜 본질적으로 잘못된 로마 카톨릭의 신앙고백을 개조하면서까지 개신교가 사용해야 하는가? 거기에는 복음의 핵심도 빠져있지 않은가? 개신교는 지금 혼합주의로 가는 미혹의 울무에 걸려있다고 보아야 한다.

배도의 때에 참 기독교는 점점 소그룹(small minority)로 축소되어 가고 있다(눅18:8).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참 성도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서 성별된 생활을 해야 할 때이다.

프린스톤 대학의 예배당에 비치한 사도신경 개정판

**The Apostles' Creed,
an alternate version**

I believe in God

the Father-Mother almighty,
creator of heaven and earth

전능하신 아버지-어머니 하나님을
믿사오며

I believe in Jesus Christ, God's only Child, our Sovereign,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하나님의 유일한 아이, 우리 주 예수....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Having descended to the dead and having risen on the third day,
Christ ascended into heaven,
sits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Mother,
and from there will come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죽은 자에게 내려가시고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아버지-어머니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Quoted from 'The New Century Hymnal', Pew Edition
The Pilgrim Press, Cleveland, Ohio, 1995
(ISBN 0-8298-1050-1)

마리아는 하나님이신 예수의 어머니이므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로마 카톨릭의 사상을 보게 된다.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경이 증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다.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부 하나님에는 반드시 "하늘황후"가 되는 마리아가 포함되는 것이고,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자 하나님에는 반드시 "공동 구속주"가 되는 어머니 마리아가 포함되어야 한다. 어머니 없는 성자 예수는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로마 카톨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Baby Jesus(아기 예수) 이다. 어머니 마리아의 보좌가 필요한 구세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에게로(To Jesus through Mary)" 라는 용어를 흔히 사용한다.

* 이 대학에서 사용하는 주기도문 개정판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어머니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 ." 라고 되어 있다.